

남북한 문장 부호 비교

전수태

국립국어연구원

1. 머리말

남한의 현행 어문 규범은 크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대별되는데 양자 모두 정부에서 제정하여 1988년 1월 19일에 문교부 고시 88-1과 문교부 고시 88-2로 각각 공포된 것이다. 북한의 어문 규범은 북한 국어사정 위원회가 1987년 5월 15일 공포하고 1988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책으로 발간한 ‘조선말 규범집’의 내용이다.

남한의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이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 [부록] 문장 부호로 되어 있고, ‘표준어 규정’이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법, 문화어 발음법의 네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 부호법에서 남한이 맞춤법을 부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북한이 독립적인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현행 어문 규범에서 남북한의 문장 부호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는 지금 문장 부호를 섬세하게 다듬으려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통일 시대에 우리가 문장 부호법

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남북한 문장 부호

남한의 현행 문장 부호법은 1988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에 부록으로 처리되어 있고, 북한의 현행 문장 부호법은 ‘조선말 규범집’(1988)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법, 문화어 발음법의 네 부류로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된 영역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2.1 남한

현행 우리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처리된 문장 부호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짓수로는 19가지이고 부호 수는 25개이다. 이 가운데 고리점, 모점, 겹낫표, 낫표는 세로쓰기에 쓰이는 문장 부호이다.¹⁾

I. 마침표 [종지부]

1. 온점(.), 고리점(.) 2. 물음표(?) 3. 느낌표(!)

II. 쉼표 [휴지부]

1)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10. 29)에 ‘부록’으로 처리된 것이 시초인데 이 때에는 부호가 명칭 없이 아래와 같이 13개이었다.

。 ・ 、 ∴ ; 『 』
 「 」 ! ? = — --
 ……

그 후 1940년판에서 13개의 부호는 번호로는 39번까지 붙어났고 같은 번호에서 세 분된 번호까지 계산하면 39개가 훨씬 넘었다. 문장 부호에 대한 명칭도 이 때 붙게 되었는데 ‘마침표(終止符), 그침표(中止符) … …’ 등으로 고유어가 노출되어 있었고 한자어가 () 속에 병기되어 있었다.

- 이음표 ” 같음표 — 풀이표
- ~ 물결표 … 줄임표⁴⁾

2.3 남북한 부호, 명칭 비교

이는 형식적인 면에서 남북한에 각각 있는 것, 기능은 같고 부호가 다른 것, 부호가 같고 이름이 다른 것, 부호와 이름이 일치하는 것, 기타로 나눌 수 있다.

2.3.1 남북한에 각각 있는 것

- 남한에 있고 북한에 없는 것
 - (고리점) 、 (모점) · (가운뎃점)
 - / (빗금) 『 』 (겹낫표) 「 」 (낫표)
 - { } (중괄호)
- 북한에 있고 남한에 없는 것
 - ; (반두점) ” (같음표) I, II, III… (대목, 장, 절 가르는 부호)

2.3.2 기능은 같고 부호가 다른 것

- “ ” (큰따옴표, 남한) : 《 》 (인용표, 북한)
- ‘ ’ (작은따옴표, 남한) : < > (거듭인용표, 북한)
- 。 ; (드러냄표, 남한) : …… (밑점, 북한)

2.3.3 부호가 같고 이름이 다른 것

- . 온점(남한), 점(북한) : 쌍점(남한), 두점(북한)
- () 소괄호(남한), 쌍괄호(북한) [] 대괄호(남한), 꺾쇠괄호(북한)
- 줄표(남한), 풀이표(북한) - 붙임표(남한), 이음표(북한)⁵⁾

4) …는 1940년의 개정 제10판에서도 줄임표인데 ‘종종이’라고도 불리었다.
 5) 북한의 『조선어 철자법』(1954. 9.)에서는 이음표를 ‘찌레’라고 부른 일이 있는데

2.3.4 부호와 이름이 일치하는 것

, (반점) ? (물음표) ! (느낌표) ~ (물결표)

2.3.5 기타

남한의 숨김표(××, ○○), 빠짐표(□)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숨김표(○○○, ×××, □□□)로 대응되며 같은 이름의 줄임표는 남한의 ……가 북한의 …로 대응된다.

3. 남북한 문장 부호 용법 비교

체제면에서 남한의 문장 부호법은 ‘한글 맞춤법’의 부록으로 처리되어 있고 조항 표시를 하지 않고 I, II, III… VII로 내용을 가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어문 규범 4법의 하나로 독립 영역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총칙이 따로 있어 여기에 문장 부호 사용 목적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제1항, 제2항 …제20항으로 조항 별로 갈라 내용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북한 문장 부호에 대하여 2·3과 달리 기능면, 용법면에서 비교해 보겠다.

3.1 남북한 다같이 있는 것

3.1.1. 온점(.)

남한에서는 가로쓰기에서는 온점, 세로쓰기에서는 고리점을 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66년의 ‘조선말 규범집’에서 가로쓰기로 함을 명기하고 있었다. 1988년의 ‘조선말 규범집’에는 가로쓰기 원칙이 보이지 않으나 가로쓰기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명칭은 ‘점’인

『조선말 대사전』(1992)에 따르면 찌레는 ① 이음표, ② 풀이표이다.

데 ‘끝점’이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명칭으로 보면 남한이 반점, 온점, 가운데점, 쌍점 체계인 데 대하여 북한이 반점, 점, 반두점, 두점 체계를 알 수 있다. 사용상의 차이는 우리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가운데점을 찍어 ‘3·1 운동’, ‘8·15 광복’ 등으로 표시하는데 대하여 북한은 ‘략자나 달과 낱의 수자가 합쳐져 명사화되었거나 그 뒤에 자립적인 단어가 올 때’에는 ‘트.ㄷ’, ‘민족최대의 명절 4. 15’, ‘4. 25 축구팀’, ‘9. 9절’, ‘레. 브. 톨스또이’처럼 온점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다.⁶⁾

3.1.2 반점(,)

남한에서는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에 각각 반점(,)과 모점(、)을 쓰게 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모점이 없다. 남한과 북한에서 반점은 그 명칭이 일치한다. 반점은 남북한 다같이 근본적으로는 문장이나 단어의 연결에 쓰이는데 남한의 경우에는 숫자와 관련하여 그 쓰임을 명시하여 숫자를 나열할 때(1, 2, 3, 4), 수의 폭이나 개략적인 수를 나타낼 때(5, 6세기, 6, 7개),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14,314) 쓰인다고 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특별히 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3.1.3 쌍점(:)

명칭은 남한에서는 쌍점, 북한에서는 두점인데 소표제 뒤에 설명이 나올 때에 쓰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내포되는 종류를 들 때(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저자명 다음의 저서명을 적을 때(주시경: 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1910), 시와 분(오전 10:20), 장과 절(요한 3:16)을 구분할 때, 둘 이상을 대비할 때(대비 65:60) 쓰이는 데 대하여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 없이 문장 단위를 대상으로 “한 문장이 대체로 끝나면서 뒤에 오는 말들이 앞문장을 다시 설명하거나 보충할 때 그 앞문장의 끝에 칠수

6) ‘트. ㄷ’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약어이다.

있다.”고 하고 “장내는 바야흐로 흥성거렸다 : 손님들이 밀려들고 아이들이 뛰놀고 풍악소리가 들리고 하면서…”를 예로 들고 있다.

3.1.4 큰따옴표(“ ”)

남한에서는 가로쓰기에서는 큰따옴표(“ ”), 세로쓰기에서는 겹낫표(『 』)를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인용표(《 》)를 쓰고 있다. 양자 모두 대화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앞뒤에 쓰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두 가지 용법이 더 있다. 첫째, “어떤 말마디나 표현을 특별히 드러내서 나타낼적에 그것의 앞뒤에 친다.”고 한 것이다. ‘《김일성저작집》’, ‘《영화예술론》’, ‘《80년대속도》’, ‘혁명소설 《백두산기슭》’ 등이 그 예이다.⁷⁾ 둘째, “《이른바》라는 뜻을 가지고 따온 일반적인 말마디나 부정적인 표현의 앞뒤에 친다.”는 것이다. ‘《바다의 왕》이라는 고래’, ‘《하늘의 독수리》라는 비행사’,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 등이 그 예이다.

3.1.5 작은따옴표(‘ ’)

남한에서는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 세로쓰기에는 낫표(「 」)인데 북한에서는 거듭인용표(< >)를 쓴다. 거듭인용표라는 명칭은 재차 인용할 때 쓴다는 뜻으로 기능을 나타낸 용어나 인용표가 둘이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⁸⁾ 남북한에서 다같이 인용한 말 안에 다시 인용할 때 쓰는 것은 공통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두 가지 용법이 더 있다. 첫째,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쓰는데 여기에는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등의 예가 있다. 둘째, [붙임]에서 언급한 것으로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러냄표 대신에 쓰기도 하는데 이는 북한의 인용표(《 》)와 같은 용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7) 책 이름에서 우리가 규정과는 달리 가로쓰기에서 『 』를 즐겨 쓰고 있는 데 대하여 북한에서는 《 》를 쓰고 있다.

8) ‘작은인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오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등이 이에 속한다.

3.1.6 소괄호(())

남한에서는 소괄호, 북한에서는 쌍괄호라는 용어를 쓴다. 남한에서의 용법은 아래와 같다.

-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적을 때에 쓴다.
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
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다.
‘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
-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단어, 구에 쓰인다.
(1) 주어 (가) 명사 (라) 소리에 관한 것
- 빈 자리임을 나타낼 적에 쓰인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본문을 보충하기 위하여 붙인 말에, 그리고 인용하는 말의 출처를 밝히는 곳에 쓰인다고 하였다. 전자의 예와 후자의 예는 각각 아래와 같다.

-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다. (그해도 풍년이 들었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는 나에게 ...
- <<... 그리워하던 장군님의 존안을 이렇게 문득 뵈옵게 되니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3.1.7 대괄호([])

남한에서는 대괄호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꺾쇠괄호라고 한다. 남북한 모두 괄호 안에 다른 괄호가 있을 때 바깥에서 쓴다는 것에서는 공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 이외에 남한에서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등과 같이 쓰인다.⁹⁾

3.1.8 줄표(—)

남한에서는 줄표, 북한에서는 풀이표라고 한다. 남한에서는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하여 부연하는 말이 끼어들 때에도 쓰이고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에도 쓰인다.

- 그 신동은 네 살에—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벌써 시를 지었다.
- 어머니께 말했다가—아니, 말씀드렸다가—꾸중만 들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첫째, 같은 종류의 문장 성분들과 그것에 대한 묶음말 사이에 쓰인다(벼, 보리, 밀, 강냉이—이런 알곡들은 …). 둘째, 동격어의 뒤에 쓰인다(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셋째, ‘에서—까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인다(평양—신의주, 아침—점심). 넷째, 제시어의 뒤에 쓰인다(우리 생활—그것은 곧 예술이다). 다섯째, 서로 맞서거나 대응하는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인다(공대—의대 축구 경기). 여섯째, 특수한 글에서 주어와 술어가 토 없이 맞물렸을 때 그 사이에 쓰인다(나—《갈매기》호 선장, 철호—통신병).

9) 북한의 경우는 [] 외에 【 】, … 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40년의 개정 제10판에서도 묶음표(괄호)에서 (), (()), { }, [] 외에 “인쇄상에서 시각상 주의를 끌기 위하여거나, 무슨 구별을 보이기 위하여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필요로 아래와 같은 부호들을 사용한다.”고 하여 ○, □, △, ◇, ◎, ●, ■, ▲, ◆, ★ … 등 43개의 예를 제시하였다.

3.1.9 붙임표(-)

남한에서는 붙임표, 북한에서는 이음표이다. 남한에서는 합성어 표시, 접사와 어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쓰거나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에 쓰인다. ‘겨울-나그네’, ‘불-구경’, ‘손-발’, ‘휘-날리다’, ‘슬기-롭다’, ‘-(으)르걸’ 등은 전자에 속하고 ‘나일론-실’, ‘디-장조’, ‘빛-에너지’, ‘염화-칼륨’ 등은 후자에 속한다. 북한에서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어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인다. ‘조선-꾸바친선협회’, ‘굳은-넓은잎나무’, ‘구조-문법적 특성’, ‘물리-화학적 성질’ 등이 그 예이다.

3.1.10 줄임표(……)

이름은 남북한 모두 줄임표이고 남한에서는 6점, 북한에서는 3점을 쓴다. 할 말을 줄일 때 쓰이는 것은 공통이나 남한에서는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북한에서는 제목이나 차례의 뒤에 보충 설명을 붙일 때에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 한하여는 점의 수에 제한이 없다. ‘머리글……편집위원회’, ‘《우리 말 강좌》……언어학연구소’, ‘학계 소식……편집부’ 등이 그 예이다.

3.2 남한에만 있는 것

3.2.1 가운뎃점(·)

이는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데 첫째,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 쓴다. “철수·영이,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온점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 ‘3·1 운동’, ‘8·15 광복’ 등이 예이다. 셋째,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 “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3.2.2 빗금(/)

빗금은 첫째,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쓴다. ‘남궁만/만궁 만’, ‘백이십오 원/125원’, ‘착한 사람/악한 사람’, ‘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둘째,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한다. ‘3/4분기’, ‘3/20’ 등이 그 예이다.

3.2.3 중괄호({ })

이는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쓰이는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주격 조사	{	이 가	}	국가의 3요소	{	국토 국민 주권	}
---------	---	--------	---	---------	---	----------------	---

3.3 북한에만 있는 것

3.3.1 반두점(;)

이는 한 문장 안에 이미 반점(.)으로 구분된 말이 여러 개 잇달아 있고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의 말이 연달아 올 때 더 크게 묶어지는 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쓴다. “상점에는 무, 배추, 시금치 등과 같은 남새 ; 물고기, 미역, 젓갈 등과 같은 수산물이 있었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3.3.2 같음표(#)

이는 같은 말이나 같은 표현이 겹쳐 나올 때 두 번째부터의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쓴다.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 제1작업반 반장

제2 " "

제3 " 부반장

때에 따라서는 같음표를 ‘- ’-’로도 표시한다.

○ 평양시인민위원회 지도원

남포시 — " —

3.3.3 인용표와 괄호 안에서의 부호 사용법

이는 북한 문장 부호법 제14항의 규정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표나 괄호 안의 말이 문장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부호를 쓰나 인용표나 괄호 안의 말이 문장이 아닐 경우에는 문장 부호를 쓰지 않는다. 단, 인용표나 괄호 안의 말이 여러 마디일 때에는 “같이 있던 네 사람(작업반장, 분조장, 태식 아바이, 성숙)이 달려왔다.”와 같이 부호를 쓴다. 둘째, 괄호 안의 말이 전체 문장의 끝에 있는 경우는 괄호 뒤에 아무 부호도 사용하지 않는다. “공든 탐이 무너지랴”(속담)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인용표 안에 있는 문장의 끝에서 전체 문장도 끝나는 경우는 끝맺는 부호를 “애, 주의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등처럼 사용한다.

3.3.4 제목글에서의 부호 사용법

이는 북한 규정 제19항의 내용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목글에서 느낌문, 물음문의 경우는 문장의 끝에 해당 부호를 쓰나 서술문의 경우에는 “모내기를 끝냈다”처럼 부호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신문, 잡지 등의 제목글이 명명문이나 맺음토 없이 끝난 문자인 경우에는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충실성의 정도”,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등의 예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감정의 색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해당한 부호를 쓸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등으로 예를 삼을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

북한의 규정은 남한 규정의 온점 부분에서 표제어나 표어에는 온점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서 남한과 일부 공동점이 있다.

3.3.5 대목, 장, 절 부호

북한 문장 부호법에서는 제20항에서 대목이나 장, 절, 문단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 이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이는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 등에서 학계 공통의 편집 체계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I, II, III …… 로마수자 일, 이, 삼
- 1, 2, 3 …… 아라비아수자 일, 이, 삼
- 1), 2), 3) …… 반괄호 일, 이, 삼
- (1), (2), (3) …… 쌍괄호 일, 이, 삼
- …… …… ……

4. 결 론

위에서 필자는 문장 부호법이 1980년대 후반에 공포된 남북한 현행 어문 규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규정 사이에는 형태면에서 남한과 북한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 기능은 같고 부호가 다른 것, 부호가 같고 이름이 다른 것, 부호와 이름이 일치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기능면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졌으나 남북한에서 그 용법이 조금씩 다른 것, 아예 어느 한쪽에만 있어 다른 쪽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 것 등이 있다. 본문에서는 이들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금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문장 부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작업 중에 있다. 이 글은 여기에 일정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앞으로 통일 시대에 우리 맞춤형의 문장 부호 규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얼마간의 실마리를 제시하

여 줄 것이라 믿는다.

문장 부호는 합리적이고 간편하면서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편성이란 국제 공용성을 이른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한에서 서로 모자라는 점을 보충해야 하고 그 명칭도 부호의 모양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해져야 한다. 문장 부호는 문장 해독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참고 문헌

-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1954). 『조선어 철자법』. 과학원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2001).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2001-1-6.
- 국어사정위원회(1966). 『조선말 규범집』. 사회과학원출판사.
-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 규범집』. 사회과학출판사.
- 고영근(1994). 『통일 시대의 어문 문제』. 길벗.
- 김민수(1989). 『북한의 국어 연구』(증보판). 일조각.
- 김민수 편저(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언어』. 태학사.
- 김민수 편(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서정수 외(1996).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연구 보고서). 국어정보학회.
-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 비교』. 도서출판 녹진.
- 전수태(2000). 남북한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 『국어문화학교』(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 한글학회(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33-'80).